

# \*\*\*\*\*한국도서관을 위한 저자기호법의 연구\*\*\*\*\*

## —기호법의 요건과 표의 구조론에

### 입각한 기성 저자기호표들에 대한 비판—

이 재 철

(연세대 도서관학과부 교수)

#### ■ 편집자주 ■

이 글은 1970년 11월 7일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서 개최된 「한국도서관학회 제1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필자의 발표논문 요지이다. 이 논문은 원래 “표의 구조론에 입각한 우리 나라 저자기호법의 연구”와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삼기 문제에 대하여 —기호법의 요건과 Syllabic Notation의 원리에 입각한 고찰—”과 “東西著者記號表(제2판, 개정판)의 구성원리와 사용원칙”이란 제목으로 되어 있는 세편의 독립된 논문인데 동학회 학술발표회를 위하여 I, II, III, 으로 요약하여 발표한 것이다.

이 논문들의 지상발표는 I은 한국도서관학회지 제1집에, II는 연세대학교 “人文科學” 제24집(1970년 12월)에, III은 본 기관지에 각각 실릴 예정이다.

#### I

현대 기호표의 구조이론은 대체로 열거식 방식(enumerative system)보다 분석적 합성식 방식(analytic-synthetic system)을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것으로 치는 경향이 있다. 이 합성식 방식은 1957년 영국의 Dorking에서 열렸던 「국제분류학연구회의」(International Study Conference on Classification for Information Retrieval)에서도 6개 중요합의사항(mainpoints of agreement)의 첫째가는 항목으로 채택되어, 전세계 분류학계에 널리 권장되고 있는 원리이기도 한 것이다.

동 분석적 합성식 방식의 표 구조론이 어느 경우이고 다 적용되는 절대적인 이론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겠지만 한글을 기입어의 문자로 잡아 이를 기계적으로 배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자기호법으로는 이보다 더한 이상적인 구조론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글의 특성에 맞기 때문이다. 한글은 음절체로 적는 문자이되, 그 字素(字母)가 자음과 모음의 단음 문자로 분해 되어있어 기호로의 자동적인 분석(analyze)이 가능하며; 그의 음절 구조가 반드시 자음+모음 또는 자음+모음+자음의 Pattern으로 되어 있

어 즉 언제나 음절의 첫째 요소는 자음 두번째 요소는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첫부분의 자음과 모음을 숫자 기호화하여 이를 합성(synthesize) 할 것 같으면 열거식표의 두자리표와 똑같은 것이 되어, 굳이 표상에 수천 수만의 기입어를 일일히 열거하지 않고도, 또 열거식 표의 경우와 같이 표를 일일히 들춰서 기호를 찾지 않아도 그 구분과 번호매김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두째, 우리 나라 목록제는, 아직 기입의 형식, 일본인명과 중국인명의 독법, 외국어의 표기법(번자법), 배열법(음절순과 단어순문제, 된소리의 배열문제, 등)문제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설혹 어느 한 방식으로 임시 통일시켜도 언젠가는 변동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어, 다시말하면 유동적인 상태에 있으므로, 저자기호법도 그의 변동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flexibility)이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열거식 저자기호표인 高在昶, 李春熙, 張一世 표는 각각 상술한 문제(practice)중 어느 한 방식만 변동되어도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전면적인 개편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러나 필자의 저자기호법은 이 문제들을 사용법에 대한 약간의 조절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필자의 저자기호법에 대해 그의 간편성과 능률성은 인정하지마는, 그의 구분성(개별성)에 대해서는 회의 를 가지고 문제 삼는 이가 있다. 張一世씨는 필자의 표를 소도서관용 밖에 안된다고 비평하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문자 한자(一字)에 의한 기본숫자를 결합한 것만으로는 최대 15萬, 아주 출잡아도 1萬 5千의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는 Cutter-Sanborn 표보다 12배 내지 1.2 배, 張一世 표보다 33배 내지 3.3배 李春熙표보다 40 배 내지 4배를 더 개별해 주는 폭이 된다.

#### II

필자의 저자기호표는 숫자만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순수기호로 이를 수도 있고, 문자 한자(一字)에 숫자 기호를 결합한 혼합기호표로도 이를 수 있다. 또 후자의 경우 문자 하나를 취하되 자모(자음)만을 취할 수도

있고 음절을 은통으로 취할 수도 있다. 특수한 케이스에, 원한다면 문자(음절로)를 두자 취한 다음 숫자기호를 결합시킬 수도 있다. 어느 기호법보다도 기호구성예 융통성과 신축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중 필자가 가장 능률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치는 방식은 음절철 한자에 숫자를 가한 혼합기호법이다.

이 음절철의 한자(一字)를 저자기호로 삼는데 대해, 張一世씨는 획수가 비교적 많고 모양이 서로 비슷한 글자가 있어 판독의 착오를 가져와 배열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비평하고, 대신 字母(실제로는 子音) 단위로 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학자와 심리학자들이 한글의 구조에 대한 형태적 심리적면의 분석 결과는 이와 정반대로 나타난다. 한글은 그 획수가 많아지고 그 자획이 복잡해질 수록 표의력이 점차 강해져서 오히려 판독을 용이롭게 하는 특성이 있는 것이다.(예 : 꽃, 닭, 평, 왜, 등) 한글을 기계적으로 배열하기 위해서는 子音 14개와 더불어 母音(중모음까지 합친 전체 현용 모음 21개)까지를 리듬화해서 입에 발리도록 달달 외워 둘 필요가 있다. 필자가 효과를 본 자모 암기법의 호홉조절법과 리듬법은 아래와 같다.

子音 가나 / 대라 / 마바 / 사아 // 자차 / 가타 / 파하  
母音 아애 / 야애 / 어어 / 여어 // 오와 / 왜외오 /  
우워 / 웨외우 / 으의이

한글 字母를 기호로 삼는데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음절철보다 표의성을 잃게 된다. 「박계주」에 대한 저자기호를 “ㄴ 182”로 주는 것이 “박 14”로 주는 것보다 표의성을 잃는 면이 훨씬 더 크다는 말이다. 둘째로, 열거식표이든, 합성식표이든 간에 같은 구조 방식에 의한 표일 경우 기호의 자리수를 길게 갖게 한다. 설혹 같은 자리수라 할지라도 발음상으로는 字母의 경우가 음절의 경우보다 오히려 길어져서 기호법의 요건인 짧막성(brevity)을 형태적면(graphic length)에서나 발음적면((phonetic length)에서 기할수 없다. (예 : “박14”는 /박일사 /라고 세음절로 부를 수 있는데 대하여, “ㄴ 14”는 /비음일사 /라고 비음절로 발음 됨을 말함). 셋째, 한 자모의 자형은 단독으로 쓰일 때, 숫자 또는 로마자의 자형과 비슷한 것이 몇 개나 있어, (예 : ㄱ, ㄴ, ㅇ, ㅌ, 등), 양서를 로마자에 의해, 저자기호화하는 도서관에서는 청구번호상 혼동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예 : L161ㅇ, E567, O771ㅇ, 등)

최근의 기호법은 조기성면과 더불어 발음성(pronounceability)도 크게 존중하여, syllabic notation 이라는 두번째 자모를 母音으로 갖게 하는 음절식 기호법을, 자기네 말과 글의 관용(usage)을 뜯어고쳐 가면서까지

적용시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런데 원래가 그 원리에 딱 들어맞게 되어 있는, 우리 한글을 가지고서, 이 추세에 역행해 가면서까지 또 우리말의 용법에도 위배해 가면서 까지 굳이 자모단위의 기호법을 취한다는 것은 년센스에 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III

1958년에 발표한 필자 고안의 동서저자 기호표(제1판)에 비해 이번 새로 개정되는 제2판의 큰 변동은 다음과 같다.

제2판에는 종전의 제1표, 제2표와 더불어 이번 새로 개정한 제3, 4, 5, 6표 (1970년 10월 연세대도서관학과에서 교재용(등사물)으로 발표)가 수록된다. 이 네표의 새표들은 모두 제2표를 기초로 해서 약간 개선한 것으로서 각기 따로 따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표이다. 즉 그중에서 자기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것을 취택해 쓰도록 한 것이다. 네표가 공통으로 종전의 표와 달라진 점은, 종전에 ㄷ과 ㅌ에 배정되었던 22(ㄷ)과 81(ㅌ)의 두단위의 숫자기호를 2(ㄷ)과 8(ㅌ)의 한 단위기호로 고치고, 그밖의 두단위 자음기호를 ㄴ19, ㄷ29, ㅋ87, ㅌ88, ㅍ89과 같이 조절하였다. 이에 따라 모음기호도 약간 조절·변경하여, 종전의 유희번호였던 24부터 29까지 85부터 89까지의 숫자기호들을 활용시켰다. 이로써, 전체적인 면에서, 종전보다 7분의 1가량 숫자기호의 길이를 단축시킨 셈이 된다.

새로 개정된 네표의 각표마다의 차이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3표(실용형 가표)와 제4표(실용형 까표)는 탁상에서 표에 의해서만 저자기호를 매기지, 실제로는 서가목록을 별로 참고하지 않는 도서관용으로 만든 것이다. 설혹 서가목록에 의해 번호를 확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저자는 다른데 표에 의한 번호는 같을 경우, 먼저 들어온 저자에 번호유지의 특권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들은 저자가 자모순으로 앞서는 경우에도 번호 추가에 의한 개별관계로 부득이 뒤로 놓여지는 씨스름이고, 제5표(아이디얼형 가표)와 제6표(아이디얼형 까표)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완전한 자모순 배열을 기할 수 있는 씨스름이다. 또한 “가표”(제3표와 제5표)와 “까표”(제4표와 제6표)의 차이는, “가표”는 된소리를 예사소리와 동일시하는 「가나다순」배열법을 취하는 도서관용이고 “까표”는 이를 별개시하는 「가까나순」의 배열법을 취하는 도서관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표의 사용법에 있어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문자기호가 받침 ㄷ, ㅌ, ㅊ, ㅋ, ㅌ, ㅍ, ㅎ의 외받침 및 ㄴㅎ, ㄷㄱ, ㄷㅇ, ㄷㅂ, ... 등의 결합침을 가질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음엔) 숫자기호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복될 때에 한해서 숫자를 임의로 덧붙여 개별

해 주도록 하였다. 또 제1판에서는 저자기호의 보조기호로 표제(서명)등의 첫자음을 취했었는데, 새판에서는 자음에 기본모음을 합성한 기본음절(기본자형)만을 취하게 하였다. 그 자형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점차로 받침, 중모음, 중모음+받침을 순차적으로 덧붙여서, 첫머리가 같고 뒤가 다른 표제(서명)을 한자(一字)만으로 개별토록 하였다. 보조기호를 자음대신 음절을 취하게 한 것은 syllabic notation의 원리에 합치시키기 위한 것이며, 초·중·종성의 자형 전체를 처음부터 다 주지 아니하고 기본자형만 주게 한 것은 배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함에서이다.

또 제2판에는 권말 부록으로 「한국현대작가기호일람」과 「일본현대작가기호일람」이 붙는다. 신문학 운동이

후 1970년 초반까지의 현대작가를 총 망라하여 자모순으로 열기한 다음, 필자의 저자기호표에 의해 기호화한 것이다. 문학 항목 외의 다른 항목에 있어서도 표에 의해 異著者同番號가 나올 경우, 그의 기계적인 처리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믿는다.

## 이 달의 도서관 역사

12월

- 전주도서관 설립(1915)
- 부림도서관과 아동유원지로 대관정을 매수하여 건설하기로 부에서 계획(1925)
- 회양간이도서관 개관(1927)
- 진남포부림도서관 개관(1931)
- 김인정도서관 낙성식거행(1931)
- 경주도서관 개설(1932)
- 회령도서관 개관(1933)
- 구례농촌도서관 설립(1936)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도서관 설립(1962)
- 국립중앙도서관보가 제100호로 休刊하다(1963)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서목, 1945—1962 출판(1964)
- 국립보건원도서관 설립(1964)
- 부산경남지구협의회 회지발간(1966)

- 1일 국립도서관과 경기도성인교육협회 공동주관으로 7월 24일 개설하였던 수원이동도서관의 대신으로 국립도서관지할 수원문고를 개설(1947)
- 동아대학교도서관 설립(1947)
- 제주도교육연구소도서관 설립(1955)
- 고서목록집성을 동국대학교도서관에서 출판(1962)
- 2일 1955년도 경남도교위지정 도서관시법학교의 합동실천보고회를 통영여자중고등학교에서 개최(1965)
- 5일 도서 제2호부터 을유문화사에서 간행(1960)
- 장일세 저 학교도서관운영지침 출판(1964)
- 6일 연세대학교도서관학동문회 결성(1960)
- 7일 충남도협북부지구학교도서관부회 결성(1913)
- 10일 서울남산시립도서관 신축 준공(1964)
- 부산시립도서관 장서목록(고서) 출판(1965)
- 12일 전북도립도서관 설립(1949)
- 15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분류별 양서목록 출판(1962)
- 16일 한국도서관협회 주최 제3회 도서관실무강습회를 21일까지 국립도서관에서 개최(1957)
- 대통령령 제1622호로 개정공포된 교육공무원법 별표(1)에 사서교사자격을 직제화 하다(1963)
- 17일 문교부 지정 학교도서관연구발표회를 전남여수동국민학교에서 개최(1965)
- 18일 충남도교육국 주최로 22일까지 도내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사서교사강습회를 대전대학에서 개최(1962)
- 19일 국립공업연구소도서관 설립(1957)
- 경기지구도서관협의회 주최 학교도서관위원 세미나를 인화공과대학도서관에서 개최(1964)
- 20일 공군중앙도서관 장서목록, 1963이 출판(1963)
- 21일 파주군립도서관 설립(1962)
- 농림부도서관 설립(1964)
- 27일 Elrod J. McRee 저 An Index to English Language periodical Literature published in Korea, 1900—1940을 국회도서관에서 출판(1966)
- 29일 출판물국제교환 센터를 한국도서관협회에 설치(1958)

### ◆ 표 지 설 명 ◆

## 江華島 傳燈寺 史庫

이 江華島 傳燈寺史庫는 京畿道 江華郡 吉祥面 溫水里 鼎足山 傳燈寺 境內에 있는 鼎足山史庫의 全景이다.

史庫는 고려말 이조에 걸쳐 歷代의 實錄을 保管하던 곳으로 李朝時代에는 高麗의 制度를 계승하여 太祖 初부터 春秋館과 忠淸道 忠州에 實錄保管所를 두고 歷代實錄을 保管케 하였고 세종 21년(1439)에는 경상도 星州와 전라도 全州에 史庫를 設置하여 實錄을 보관하던 것이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으로 모두 불타 없어지고 단지 全州의 史庫本만이 남았다. 이를 영변 묘향산사고에 옮겨 보관하던 것을 선조 39년(1606)에 이 묘향산사고본을 다시 인쇄하여 강릉의 오대산사고, 봉화의 태백산사고, 강화의 마니산사고, 무주의 적상산사고에 각각 보관하였다.

그 후 肅宗4年(1698)에 정족산에 表紙寫眞과 같이 史庫를 짓고 마니산史庫로 부터 실록을 옮겨와 보관하던 것을 규장각으로 옮기고 현재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다. 이 사진은 1916년에 촬영한 것으로 현재 건물은 남아있지 않다.

## 中世修道院制度史

金昌宜 著, 景仁文化社, 1970.  
340p. 도표 22cm. 값750원

中世 西歌社會를 基督教社會로 成長케 하는데 중요한 役割을 擔當한 修道院에 관한 多角的인 研究로서 中世 修道院의 書誌活動과 圖書館의 役割 및 業務를 한장(一章)으로 取扱, 자세히 다루어 주고 있다.

연락 전화 (69)0442, (32)7888